

## 인 사 말 씀

가을 정취가 무르익은 가을, 풍요의 계절입니다.

이 좋을 때 학술토론회를 위해 귀 회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아다사 츠네히로 회장을 비롯한 긴끼세리사회 임원 여러분과 회원님, 저는 지난 설립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많은 경륜을 갖고 있는 귀 회가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번은 일본세리사회 연합회가 주관하는 AOTCA총회가 귀 회 지역에서 개최하게 되어 학술토론회가 더욱 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

그 동안 10차례 학술토론회를 통해 양국의 조세제도 등에 관해 이해의 폭을 넓혀 왔으며 충실히 친선우호관계를 돈독히 구축해 왔습니다.

금번 주제는 양국의 세무조사 현황에 대하여 토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국의 세무조사 현황이나 제도의 특징 등을 비교 토론함으로써 세무사가 조세 행정 역할 등에 대한 적절한 테마라고 생각하며 유익한 토론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히 우리 양국은 유사한 세무사제도와 법률 등을 갖고 있어 상호 같은 방향을 향해 노력하고 연구하면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술토론회는 장족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오늘 이 토론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긴끼세리사회 임원 및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귀 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10. 13

부산지방세무사회  
회 장 최 상 곤

#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こんにちは)

긴끼세리사회 아사다 츠네히로 회장입니다.

우선 지난해 10 월 2 일 개최된 긴끼세리사회 창립 50 주년 기념식 및 기념축하연에 최상곤 회장을 비롯한 많은 임원님께서 참석해주셔서 그야말로 금상첨화였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곳 오사카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귀 회와 우리회는 1991 년 우호친선합의서를 체결하였고, 그 후 보다 실질적인 교류를 돈독히 하기 위해 2005 년 11 월부터 매년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여 충실한 친선관계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이 학술토론회에서는 매년 중요한 테마를 연구하고 있으며, 그 평가는 긴끼세리사회 내외에서 매년 높아지고 있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 제목은 한국·일본 양국의 세무조사 현상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양국의 세무조사현상이나 제도의 특징 등에 대하여 비교, 검토해 봄으로써 깊이 있는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의 학술토론회가 양회의 상호이해와 우호를 더욱 더 돈독하게 하는 뜻 깊은 토론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염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귀 회가 더욱 더 발전하시고, 최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의 건강과 융성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인사말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カムサハムニダ)

2015년 10월 13일

긴끼세리사회  
회장 아사다 츠네히로